

해설 제주 밭 돌담 국가유산자원 조명 의미와 과제

‘黑龍萬里’ 세계유산적 가치 재평가

(흑룡만리)

돌담 길이 3만6000km 중 밭담 2만2000km
제주인 생존 버팀목·경관 가치도 높게 평가
복합유산 핵심자원 훼손 심각... 대책 절실

제주의 전역에 산재한 밭 돌담이 농업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주의 자연에는 밭 돌담 외에도 돌담전과 원담, 불턱 등 제주의 전통 돌문화가 두루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제주의 돌문화가 국가차원에서 후손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 자원으로 조명받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자연+문화)의 핵심 자원으로 다양한 제주의 돌문화를 고려중에 있어 복합유산 추진에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돌담=제주의 돌담은 쌓아 있는 모양에 따라 외담, 접담, 잣백담(자갈로 성처럼 넓게 쌓은 담)으로 구분된다. 위치에 따라서는 축담(초가의 외벽), 올렛담(초가 골목), 밭담(밭경계), 환해장성(외적 침입 방지를 위한 담), 포제담, 산담 등이 존재한다.

제주의 돌담은 시커먼 제주 현 무명으로 만들어졌으며 예로부터

흑룡만리(黑龍萬里)로 일컬어져 왔다. 돌담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뜻으로, 실제 학계의 선포조사에 따르면 제주 돌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여km이고 이중 밭담은 2만2000여km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군사용이라면, 제주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살’ 자체이며, 제주인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문화관광부는 제주 돌담을 돌하르방과 함께 한국의 100대 민속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제주 밭돌담은 구좌읍 평대·행원, 조천읍 북촌, 애월읍 괘지·신업, 환경면 용수리 일대가 특히 경관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담의 다양한 가치=제주대 고성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돌(밭)담은 이같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경관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고 교수는 연간 제주밭담의 경관가치가 평균 66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박경준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은 한 세미나에서 “그동안 제주



제주의 밭 돌담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잠재적·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좌읍 행원리 밭 돌담. 사진=한라일보DB

의 돌담은 너무 흔한 것이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유네스코 등에서는 제주의 돌담과 유사한 풍토적 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훼손 실태=제주도의 밭 돌담은 기능·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교수는 “연구결과, 돌담의 훼손율이 평균 11%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위협을 받

았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전전략=전문가들은 제주도 밭 돌담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출발점은 돌담이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라고 진단한다. 밭 돌담 관리자를 포함한 제주도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유산으로서의 상속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밭담의 보전과 관리는 관리자와의 1차적 관계를 통한 접근방식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밭담의 가치인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보전·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시영기자

‘저소득층에 일자리 주세요’

제주시, 자활근로 고용사업장 모집

제주시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13년 자활근로사업 인력고용사업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 자리형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장 분야이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시켜 파견기업에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30개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간 파견해 인력난을 덜어

주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인턴사업장에 30명을 파견해 이 가운데 10명이 파견시설에 취업했다.

자활근로 인력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신청서, 위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채용계획서를 갖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도우미인 경우 2012년 파견 시절 중 자활근로 인력을 미채용한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문미숙기자

공무원들 전화친절 ‘2% 아쉽네’

서귀포시, 친절도 평가... 끊을 때 태도 개선울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으나 마무리 단계인 전화끊을 때의 태도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46개 전 부서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도가 86.8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서비스 전담기관에 의뢰해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질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수신의 신속성, 설명 및 응대요령, 종료인사 등이다.

평가 결과 수신의 신속성(97점), 최초 인사(88.7점), 설명 및 응대(88.3점) 분야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마무리 단계의 종료인사(80점)와 종료시점(73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는 2008년 79.3점, 2009년 81.96점, 2010년 81.98점, 2011년 85.3점 등으로 해마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반기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로는 영전동(92.4점)과 주민생활지원과(91.8점)가 선정됐다. 한국현대기자 khhan@ihalla.com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 초청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새해의 포부를 밝히며 정진을 다짐하는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2013년 1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2층 대연회장
참가신청 2012년 12월 10일(월)까지, 신청서 팩스 또는 우편송부
참가대상 제주도민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 진흥조사부(TEL.757-2164~6, FAX.757-2167)
2012년 12월 일
제주상공회의소 (http://jejucci.korcham.net)

도의회 예산심사

감사위 기능강화 ‘예산 독립부터’

감사 추진사업비 등 감액... 제주도가 ‘딴지?’

행정자치위원회

최근 잇단 공직자 비리에 전국 청렴도 꼴찌 불명예를 안은 제주 특별자치도를 놓고 감사위원회의 ‘유명무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원회가 도민 사회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심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해 공직 비리, 청렴도 꼴찌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내년도 전문성 강화교육사업을 비롯 정기·특정·열린감사 추진사업비 등이 올해대비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 감사위 스스로의 전문성·기능 강화 노력에 제주자치도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계상된 감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9억5399만3000원으로 올해 8억4203만7000원 대비 1

3.3% 증가했지만 감사위원회 청사 고효율 LED 교체사업비(9600만원)와 행정운영비(1531만4000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업무 관련 예산증가는 제로다. 이에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가 터치할 수 없는 포괄적 운영예산을 통한 예산편성 독립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위원회 대상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희 의원은 “최근 공직 비리와 청렴도 꼴찌라는 결과로 타시도가 제주를 영랑으로 보고 있는 등 무엇보다 제주도민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져 도민은 상실·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도정질문때 우근민 지사가 공직자 비리도 있지만 도민사회 의혹·의심때문에 청렴도 꼴찌를 받았다고 한 적 있는데 그런 의혹에 감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



박주희 의원 소원욱 의원

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돼야되며 전문성·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도 독립돼야한다는 생각이다”며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받는 등 예산편성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소원욱 의원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3% 증가는 했지만 정월 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예산증가는 없다”며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증가된 예산이 없어 일을 안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행수 감사과장은 “재정현편도 감안해야 하고 확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빠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4·3평화문학상, 생색내기용 공약?

박주희 의원 “우지사 공약 실적 올리기용”

‘4·3평화문학상’이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후속조치마저 이어지지 않아 “우근민 지사의 공약 실적 올리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4·3사업소 대상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희 의원은 1억여만원 이상의 형체가 투입되는 문학상 공모가 당초 전국·세계화라는 홍보 취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드

리냈다. 공모 후 심사·시상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뿐 책 출간 등 후속조치·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의원은 “올해부터 제정된 4·3평화문학상 공모에 1억 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전 국화·세계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국·세계화를 위한 후속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시

상만 하고 끝인 문학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른 문학상 공모는 전자책 출간, 영화제작, 유명출판사 통한 서적출판도 하더라. 이런 사후관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공약 하나 실천했다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뿐”이라고 호통쳤다. 박 의원은 “4·3이 전국·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후관리가 돼야한다. 추경예라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 문학상 제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 4·3평화문학상 공모에 시상금 8000만원 등 1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카페 ‘휴마루’ 개장

장애인복지관에 지역주민들의 ‘휴마루’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시설 1층에 카페 ‘휴마루’를 마련해 8일 정식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170㎡ 규모의 ‘휴마루’는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에 50여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3명과 복지관 취업지원팀 교육훈련생 10여명이 조를 이뤄 화·토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페로 운영된다. 실내에는 아동서적, 교양서적, 신간도서가 배치되어 있는데다 커피·음료·와플 등이 판매된다. 또 복지관 내부에 잔디마루(실내골프연습장), 아이마루(실내놀이터)를 개방해 복지관이 ‘문화복합여가공간’으로 변모된다. 이현숙기자

2012년 제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 개최 안내
유라시아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하오니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 및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안내합니다.
○ 주 제 : 한·러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13:00 ~18:00
○ 장 소 : 제주시 라마다호텔 연회장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 : JDC
○ 행사 진행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3:00 - 13:30 개회인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3:30 - 14:10 기조강연 유재건 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클럽연맹 회장
14:10 - 14:40 주제발표 1 Lenkov Roman 러시아국립경영대학교 사회행정학 교수
14:40 - 15:10 주제발표 2 공영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실장
15:20 - 15:45 주제발표 3 Elena Pristupa 러시아사회복지협회 이사
15:45 - 16:10 주제발표 4 Gulnur Khakhimzanova 카자흐스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6:10 - 16:35 주제발표 5 이영철 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학장
16:35 - 17:30 토 론 좌장 : 전영록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토론 :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이귀경 박사(평화의 마을원장)
17:30 ~ 폐 회 만 찬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064)726-2154-5